



삼국유사에 재현된 여성의 양성성에 대한 현대적 문화 담론 연구 기이편에 등장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A Study about the Modern Cultural Discourse of Female Androgyny in SamgukYusa -
Focusing on Females in the Strange Stories

저자 (Authors)	표정옥 Pyo Jung-ok
출처 (Source)	인간연구 (20) , 2011.1, 171-196(26 pages) Journal of Human Studies (20) , 2011.1, 171-196(26 pages)
발행처 (Publisher)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Institute of Anthropolog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51549
APA Style	표정옥 (2011). 삼국유사에 재현된 여성의 양성성에 대한 현대적 문화 담론 연구. 인간연구(20), 171-19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 사문서관 183.106.106.*** 2021/06/13 15:3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삼국유사』에 재현된 여성의 양성성에 대한
현대적 문화 담론 연구

— <기이편>에 등장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

표 정 옥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센터 교수·국어국문학)

1. 들어가며
2. 신성성과 환상성을 역사 담론으로 형상화한 양성적 여성
3. 조력자에서 동반자로 나아가는 양성적 여성
4. 알파걸과 팜므파탈의 도플갱어로서 양성적 여성
5. 나오며

1. 들어가며

일연이 『삼국유사』를 기록한 시기는 13세기였다. 그 시대의 정전화된 자료는 김부식의 『삼국사기』로 알려져 있었다. 일연의 『삼국유사』는 김부식의 논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여성에 대한 특이한 진술이 돋보인다. 고운기의 말대로 『삼국유사』는 기록 당시부터 과히 전복적인 상상력을 발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왕과 정사 중심의 『삼국사기』의 논조를 벗어나서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삼국유사』는 기이함과 환상성을 가득 수반한다. 이것들이 사료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고 염려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후대에

풍부한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삼국유사』가 임진왜란으로 인해 일본으로 건너가서 400년의 유랑 세월을 한 것을 연오랑 세오녀의 운명에 빗댄 논의는 과히 수궁이 가는 지점이다.¹⁾ 최남선에 의해 우리나라에 1900년 초반에 알려진 『삼국유사』는 그동안 마치 천존 고에 보관된 만파식적 피리처럼 이제는 그 소리를 다양하게 내고 있다. 많은 연구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삼국유사』의 논의들이 다양한 소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삼국유사』에 대한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크게 세 가지의 흐름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연의 사상을 텍스트 외적인 차원에서 보지 않고 텍스트 내적인 글쓰기 방식에 의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흐름이다. 여기에 찬에 대한 연구와 글쓰기 방식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²⁾ 둘째, 문화콘텐츠와 문학치료 등 현대적 감각으로 일연의 상상력을 읽으려는 움직임이 들 수 있다. 이는 이야기가 새로운 치료 역할을 한다는 효용론에 입각한 것과 문화의 생산 동력이 되는 활용성과 역동성에 강조점을 둔 것이다.³⁾ 셋째, 지금까지 도외시되어 왔던 여성성의 담론으로 『삼국유사』를 재조명하는 관점의 논의들을 한 갈래로 들 수 있다. 여성 인물의 형상화와 불교와 모성성의 관계 및 모성 형상화와 여성의 역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⁴⁾ 이러한 연구들은 변화하는 시대

1) 고운기(2009), 『도쿠가와가 사랑한 책』, 현암사.

2) 이강옥(2001), 『『삼국유사』의 세계관과 서술미학』, 『국문학 연구』 Vol. 5, 국문학회; 정천구(1996), 『삼국유사 글쓰기 방식의 특성 연구 — 수이전, 삼국사기, 해동고승전과의 비교를 통해』, 서울대학교원; 박상영(2006), 『『삼국유사』 소재 찬사를 통해 본 일연의 세계 인식』, 『고전문학연구』 Vol. 30, 한국고전문학회; 고운기(2010), 『일연의 글쓰기에서 정치적 감각 — 삼국유사 서술방법의 연구 2』, 『한국언어문화』 Vol. 42, 한국언어문화학회.

3) 임재해(2009), 『삼국유사 설화 자원의 문화 콘텐츠와 길 찾기』, 『구비문학연구』 Vol. 29, 한국구비문학회; 장만식(2007), 『『삼국유사』 권2 <무왕조>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문학 치료적 함의』, 『문학치료연구』 Vol. 6, 한국문학치료학회; 하은하(2005), 『『삼국유사』 소재 설화를 이용한 문학 치료의 한 사례』, 『문학치료연구』 Vol. 2, 한국문학치료학회.

4) 이대형(2007), 『모성담론의 문화적 형성과 재현: 고대에서 근대 전환까지 모성

담론을 통해 텍스트를 새롭게 읽는 고무적인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본 논의는 세 번째 논의의 심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삼국유사』의 <기이편>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양성성이라는 용어로 진단하고자 한다. 케이트 밀레트는 여성에게 사랑이나 가정과 같은 것이 은밀하게 정치화되어 여성의 내부 식민지화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그녀는 사랑이나 성이 지배의 도구나 주도권 싸움이 될 수 있음을 피력하고 있으며, 여성 내부 식민지화는 타고난 우월성에 대한 이념으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 온 관습이라고 이야기한다.⁵⁾ 즉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랑이나 어머니라는 이름을 수반함으로써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문화 담론은 이런 여성 내부 식민지화를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한스님의 담론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21세기에 논의하는 내부 식민지화나 성별 정치화의 용어를 빗겨 가는 듯하다. 버지니아 주창했던 양성성의 인간이 오래 전에 이미 이야기되고 있었던 것 같다. 양성성의 인간은 버지니아 울프가 자신의 책 『자기만의 방』에서 논의한 개념이다. 100여 년 전 버지니아는 시인 콜리지(Samuel Taylor Coleridge)의 양성적 마음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양성성의 인간이란 타인의 마음에 항상 열려 있고 공명하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감정을 전달할 수 있으며 창조적이고 빛을 받으며 분열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⁶⁾ 양성성에 대한 논의는 종교학자이자 철학자이며 문학자인 미르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에게도 주된 관심사였다. 엘리아데⁷⁾는 신체적인 양성성과 심리적인 양성성을 나누어 설명한다. 남성의 아니무스와 여성의 아니마가 동시

담론의 문화적 조망: 『삼국유사』에 나타난 모성의 형상화, 『한국고전 여성문학연구』, 한국고전여성문화학회; 최선경(2005), 『삼국유사』 불교 설화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 형상과 기능에 관하여, 『인간연구』 Vol. 8,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5) 케이트 밀레트, 정의숙·조정호 옮김(1976), 『성의 정치학(상)』, 현대사상사.

6) 버지니아 울프, 이미애 옮김(2006), 『자기만의 방』, 민음사, 149쪽.

7)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재실 옮김(2006), 『메페스토펠레스와 양성인』, 문학동네.

에 존재하는 양성성은 신체적인 양성성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심리적 양성성이란 인간의 선과 악의 관계를 이야기한 논의이다. 본 논의에서 다루는 것은 주로 신체적 양성성의 개념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삼국유사』의 <기이편>에 나타난 여성은 세 부류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 <태공 춘추공>에 등장하는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와 <선덕왕이 미리 안 세 가지 일>의 선덕여왕을 다루고자 한다. 선덕여왕과 문희는 신성성과 환상성을 역사담론으로 형상화한 양성적 여성으로 다루어 볼 수 있다. 두 번째, <가락국기>의 허황옥의 양성적 양상을 조력자에서 벗어난 동반자의 개념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주로 신화 속 여성은 성처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영웅 탄생을 위해서 처녀 엄마가 등장하는가 하면 영웅의 내조자로서 그림자처럼 그려지기 일쑤였다. 그런데 허황옥이라는 가야의 첫 왕비의 행보는 고구려의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나 백조 온조왕의 어머니 소서노처럼 영웅의 길을 밝혀 주는 보조자가 아니라 가야의 첫 왕인 김수로와 동반자로서 왕국을 정비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알파걸과 팜프파탈의 도플갱어로서 양성적 여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때 거론되는 여성은 <도화녀와 비행랑>의 도화녀와 <수로부인>의 수로부인에 대해서 현대 양성성의 담론인 알파걸과 팜프파탈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본 논의는 지금까지 『삼국유사』의 여성담론이 모성과 불교의 인물 형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고정된 사고를 현대적 상상력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삼국유사』는 과거 화석화된 상상력이 아니라 후대에 다양하게 소통하는 상상력의 원천임을 밝히고자 한다.

2. 신성성과 환상성을 역사 담론으로 형상화한 양성적 여성

『삼국유사』의 담론에서 여성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 연구에

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영역이다. 신화학자들은 『삼국유사』의 여성성을 논할 때, 신화의 성처녀 이데올로기와 여성의 희생에 많은 관심을 두는 듯하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태생이 규범 문화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배경을 두고 볼 때 일연의 사유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 전권에는 신이성과 환상성이 가득하다. 그중 단연 두드러지는 부분이 <기이편>이라고 하겠다. <답상편>이나 <홍법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직·간접적으로 불교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할 때 <기이편>에 등장하는 다양한 여성 인물들의 신이성과 환상성에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다. <기이편>에서 우리는 먼저 신이성과 환상성을 역사 담론으로 이끌어 가는 두 여인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신이한 의미를 넘어서서 제도와 규범을 더욱 강화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일연이 선덕여왕과 문무왕의 어머니이며 김춘추의 부인인 문희를 바라보는 시선과도 연관된다. 우리는 먼저 신이한 자신의 해석을 역사의 정당성으로 풀어 가는 양성적 여성으로 선덕여왕을 바라볼 수 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하늘의 이치로 말하면 양(陽)은 강하고 음(陰)은 부드러우며, 사람으로 말하면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거늘 어찌 늙은 할미가 규방에서 나와 국가의 정사를 처리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신라가 여자를 도와 세워서 임금 자리에 있게 했으니 진실로 어지러운 세상의 일이었다. 곧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서경』(書經)에서 말하기를 ‘암탉이 새벽을 알린다’라고 했으며, 『역경』(易經)에서 말하기를 ‘암돼지가 경충경충 뛰는데 믿음을 둔다’라고 했다. 그러한 것이 경계 삼을 만하지 않는가!”⁸⁾라고 선덕여왕을 폄하한 바 있다. 그런데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선덕여왕의 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셋째는, 왕이 병도 없을 때인데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을 것이니. 나를 도리천(勿利天) 가운데 장사지내라.”

8) 김부식, 이우경 편역(2007), 『새로운 삼국사기』, 한국문화사, 198~199쪽.

신하들은 그곳이 어디인지 몰라 물었다.

“어디입니까?”

왕이 말하였다.

“낭산(狼山)의 남쪽이다.”

그 달 그날에 이르러 과연 왕이 죽었다. 신하들은 왕을 낭산 남쪽에 다 장사지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뒤 문무대왕(文武大王)이 왕의 무덤 아래에 사천왕사(四天王寺)를 지었다. 불경에 말하였다.

“사천왕천(四天王天) 위에 도리천이 있다.”

이에 대왕이 신령스럽고 성스러웠음을 알게 되었다.

왕이 살아 있을 당시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모란꽃과 개구리의 두 가지 일이 그러할 줄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왕이 말하였다.

“꽃 그림에 나비가 없어 향기가 없는 것을 알았다. 이는 당나라 황제가 배필이 없는 나를 놀린 것이다. 개구리의 성난 모습은 군사의 형상이고, 옥문(玉門)이란 여인의 음부로서 여인은 음이 되며 그 색깔이 흰데, 흰색은 서쪽을 나타내기 때문에 군사가 서쪽에 있음을 알았다. 남근(男根)이 여근(女根)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된다. 따라서 쉽게 잡을 수 있음을 안 것이다.”

신하들은 모두 여왕의 그 성스러운 지혜에 감탄하였다.

— 『삼국유사』, <선덕왕이 미리 안 세 가지 일>⁹⁾

위의 인용을 통해서 볼 때 선덕여왕은 세 가지 지혜를 통해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모란꽃의 향기 없음을 알아낸 것이고, 두 번째는 적들이 잠입한 것을 알아낸 것이며, 세 번째는 자신이 죽는 날과 묻힐 곳을 예언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세 번째 자신이 죽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선덕여왕의 세 번째 예언은 후손들에게 부탁하는 성격이 강하다. 즉 자신이 묻히는 곳 아래에 사천왕사를 지어서 자신이 묻힐 곳을 도리천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일 것이다. 이는 후대 왕에게도 선덕여왕에게도 모두 득이 되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선덕여왕의 입장에서 신이한 예언을 통해 여왕으로서의 자신의 지

9) 본고의 『삼국유사』 본문 인용은 일연, 김원중 옮김(2002), 『삼국유사』, 을유문화사를 따름. 인용의 밑줄 표시는 필자.

위를 후대에 빛낼 수 있는 방법이고, 후대 왕은 선대왕의 후강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무왕이 사천왕사를 건설한 것은 당시 당나라의 침입을 도력으로 막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선대왕의 후강을 통해 왕으로서의 자신의 신성성을 공인받아야 하는 시점이었다. <문무왕>편에 드러난 대화를 통해 당시 당나라와 긴박했던 나라 정황을 읽어 볼 수 있다.

명랑이 왕에게 아뢰되, “낭산 남쪽에 신유림(神遊林)이 있는 바 그곳에 사천왕사를 짓고 도량(道場)을 개설하면 될 것외다”라고 하였다.

이때에 정주(貞州)에서 사람이 달려와 급보하기를, “당나라 군사들이 수없이 우리나라 지경까지 와서 바다 위에 순회하고 있사외다”라고 하였다.

왕이 명랑을 불러 말하기를, “일이 벌써 절박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가?”하니 명랑이 왕에게 아뢰되, “채색 비단으로써 절을 임시로 만들면 됩니다”하여 왕이 채색 비단으로써 절집을 꾸리고 풀(草)으로써 오방의 신상을 꾸려 놓고 유가 명승(瑜伽明僧) 열두 명이 명랑법사를 우두머리로 삼아 문두루(文豆蘘)의 비밀 술법을 썼다. 이때에 당나라 군사와 신라군사가 아직 교전을 하지 않았는데 풍랑이 크게 일어나서 당나라 배가 모두 물에 침몰하였다. 뒤에 절을 고쳐지어 사천왕사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불단의 법석이 계속되고 있다.

— 『삼국유사』, <문무왕>

즉 사천왕사의 건립은 지극히 인위적인 것이었고 선덕여왕의 예언 역시 후대 왕인 문무왕의 해석에 의해 그 신성성이 더욱 부각된 인위적인 일이라는 점이다. 신성성과 환상성을 통해 신라 최초의 여왕이 역사에 강력한 왕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는 지점이다. 또한 선덕여왕의 모란꽃 해석과 옥문지 해석에서 보이는 양성성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이어령은 선덕여왕이 꽃을 관찰하는 부분에서는 관찰자와 같은 분석력을 발휘하고 적명을 찾아내는 데는 시인과 같은 직관력을 활용한 것이 비극이라고 비판하였다.¹⁰⁾ 그

10) 이어령(2006), 『이어령의 삼국유사』, 서정시학, 254쪽.

러나 본 논의는 이 지점에 선덕여왕의 양성성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선덕여왕은 여성이 꽃을 보면 아름답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생각을 뒤집고 과학적이며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 그림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옥문지의 경우에는 과학적인 분석력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뒤집고 매우 시적으로 직관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담론이 아름답거나 여성스러움에 연루되는 고정적인 틀을 깨는 양성성의 예로 볼 수 있다. 적병을 찾아낼 때 필요한 것은 어쩌면 과학보다는 흥흥한 나라의 인심을 알아차리는 직관일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문희는 신성성과 환상성을 역사의 담론으로 끌어가는 역사의 또 다른 주인공이다. 문희는 삼국의 통일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가야의 후손인 김유신의 두 번째 여동생이다. 김유신은 신중하고 철저한 계산하에서 김춘추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다. 일연은 김춘추가 오기 전에 김유신 여동생들의 꿈 거래를 기록하고 있다. 김춘추가 오기 전에 이 집에는 왕후가 되는 꿈이 거래를 통해 자리 이동한 것임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이는 문희가 왕후로 등극하는 것의 환상성과 신성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언니가 꿈 범상치 않은 꿈을 산 이야기는 비단 동생 문희와 언니 보희의 일화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고려의 공예태후 역시 그러한 꿈을 언니에게 사고 나서 왕비로 천거받는다. 장흥 출신 공예태후 임씨(恭睿王后 任氏, 1109~1183)는 고려의 17대 왕인 인종의 아내이자 의종, 명종, 신종의 어머니이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고려 후기에 살았던 일연(1206~1289)보다 더 앞섰던 인물이다. 민간에는 꿈을 사서 왕비가 되는 설화가 이미 있었을 것이다. 신화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늘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¹¹⁾ 아마도 일연은 거기에 김유신의 여동생들 문희와 보희의 이야기를 겹쳐서 서술한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본다. 다음은 문희와 보희의 이야기이다.

11) 카렌 암스트롱, 이다희 옮김(2005), 『신화의 역사』, 문학동네, 13쪽.

이전에 어느 날 문희의 언니 보희가 꿈에 서악(西岳)에 올라가 오줌을 누었더니 경성에 가득 차는 꿈을 꾸었다. 아침에 동생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문희는 그 말을 듣고 말하였다.

“내가 이 꿈을 살게.”

그러자 언니가 말하였다.

“무슨 물건을 주겠니?”

동생이 말하였다.

“비단치마를 주면 되겠어?”

언니는 말하였다.

“그래.”

동생은 꿈을 받으려고 치마폭을 벌렸다. 언니가 말하였다.

“어젯밤 꿈을 너에게 주겠다.”

동생은 그 값으로 비단 치마를 주었다.

열흘 뒤, 김유신은 정월 오기일(午忌日, 앞에서 기술한 거문고 갑을 쓴 일로 보아, 이는 최치원의 설이다)에 춘추공과 함께 자기 집 앞에서 축국(蹴鞠, 신라 사람들은 축국을 농주희(弄珠戲)라고 하였다)을 하다가 일부러 춘추공의 옷을 밟아서 옷고름을 찢고는 말하였다.

“우리 집에 들어가 꿰맬시다.”

춘추공은 이에 따랐다.

김유신이 아해(阿海)에게 꿰매도록 하자 아해가 말하였다.

“어찌 사소한 일 때문에 경솔히 귀공자를 가까이하겠습니까?”

그리고 한사코 사양하였으므로〔고본(古本)에는 병 때문에 나오지 못하였다고 하였다〕아지(阿之)에게 시켰다. 춘추공은 김유신의 뜻을 알아차리고 아지를 가까이하여, 이후부터 자주 왕래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김유신은 누이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 크게 꾸짖었다.

“네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임신했으니. 어찌 된 일이나?”

그리고는 그의 누이동생을 불태워 죽일 것이라고 온 나라에 소문을 퍼뜨렸다. 어느 날 선덕여왕이 남산으로 행차하기를 기다렸다가 뜰에 장작을 쌓아 놓고 불을 붙여 연기가 일어나게 하였다.

— 『삼국유사』, <태종 춘추공>

문희는 세 가지 점에 있어서 현대 문화 담론의 양성성을 실현하는 여성이다. 첫째, 꿈의 영험함을 살 정도로 지혜로웠다는 것이다. 즉 이야기의 힘을 믿고 시대를 앞선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문희는 언니가 거부한 낯선 남자의 옷을 꿰매는 데 적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오빠 김유신의 의중을 알아차린 지혜로 보인다.

세째,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그녀는 자신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 불태워 죽이려는 오빠의 뜻을 알아차린 용감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문희의 용기와 담력은 그녀를 왕후로 나아가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문희의 왕후는 단순한 신라의 왕비가 아니라는 데 있다. 가야의 후손인 김유신은 선덕, 진덕, 무열, 문무 등 여러 왕을 모시면서 신라의 통일을 위해 애썼다. 그리고 마침내 그 통일의 기틀을 잡은 무열왕의 왕비로 자신의 여동생을 추대하고, 이러한 결과로 자신의 조카인 문무왕은 최초로 신라와 가야의 통합된 왕으로 우뚝 선다. 일연의 『삼국유사』 <가락국기> 편에 보면 문무왕이 가야의 제사를 지낸 것을 높이 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조력자에서 동반자로 나아가는 양성적 여성

질베르 뒤랑에 의하면 사회적 조직이나 제도는 쉽게 단원화되는 데 반해 사회적 이드(Id)는 다원적이면서도 풍요롭고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한다.¹²⁾ 신화는 대표적인 사회적 이드이다. 가야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연이 기술한 <가락국기>는 매우 요긴한 자료가 된다. 『삼국유사』의 <기이편>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야의 이야기의 중심은 허황옥이라는 왕비의 등장이다. 주몽을 낳았던 유화와 온조를 낳아서 왕으로 만들고 백제 건립의 도움을 주었던 소서노가 단지 영웅의 조력자로 기술된 것과는 사뭇 다른 방향이다. <가락국기>의 허황옥은 가야의 첫 번째 왕인 김수로의 조력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음이 눈에 띈다. 엄밀하게 현대 담론으로 보자면 허황옥은 다문화 이주 여성성이다. 즉 머나먼 아유타국의 공주가 꿈에 하늘의 계시를 받고 동쪽 나라의 왕비가 되고자 가야라는 나라에 들어온 것이다. 그녀가 타고 온 배에는 바사탑이 함께 전하는 것으로 볼 때 불

12) 질베르 뒤랑, 유평근 옮김(2002), 『신화 비평과 신화 분석』, 살림, 201쪽.

교의 전래도 함께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고운기는 일연이 허황옥에게 관심을 가지는 지점이 바로 이러한 불교와의 연관성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보다도 일연이 <가락국기> 텍스트 안에서 주목한 허황옥의 특징은 양성적인 인간이라는 점이다.

일연이 허황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양성성의 양상을 몇 가지로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허황옥은 철저하게 양성 평등을 지킨 자존적인 여성이다. 최재천¹³⁾은 암수가 하나라면 어떨까하는 가정을 논의하면서 허황옥의 호주제 이야기를 꺼내 온다. 허황옥은 7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중 네 명은 아버지 김씨의 성을 잇고 나머지 세 명은 어머니 허씨의 성을 따르게 했다고 한다. 이는 아버지의 성만을 따르던 자신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허황옥은 다문화 여성이면서 호주제를 가장 먼저 실현한 여성이었다. 본고가 허황옥을 양성성의 예로 바라보는 근거이다. 그녀가 가야에 들어왔을 때 가야의 신하들은 그녀를 맞으러 나간다. 그 장면은 다음과 같다.

(배에서 내려) 왕후는 말하였다.

“나는 그대들과 평소에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어찌 감히 경솔하게 따라가겠는가?”

유천간 등이 돌아가서 왕후의 말을 아뢰니, 왕은 그녀의 말이 옳다고 여겨 육사를 데리고 행차하였다. 그리고 대궐 아래 서남쪽 60보쯤 되는 곳의 산언저리에 장막을 치고 기다렸다. 이에 왕후가 산 밖의 별포 나루터 입구에 배를 대고 육지로 올라와 높은 언덕에서 쉬면서 입고 있던 비단 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폐백으로 바쳤다.

그녀는 자신을 마중 나온 신하들에게 ‘나는 그대들과 평소에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어찌 감히 경솔하게 따라가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왕이 직접 나오도록 한다. 그녀가 평소 알지 못하기는 신하나 왕이나 마찬가지이다. 아니면 이 말 속에는 왕과는 평소에 알고 있었다는 숨은 뜻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허황옥을 소설¹⁴⁾과

13) 최재천(2003), 『여성시대에는 남성도 화장을 한다』, 궁리, 90쪽.

드라마 <김수로>에서는 아유타국 공주이면서 거상이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펼쳐 보인다. 이미 상인으로 가야에 내왕이 있었고 김수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등장한다. 왕의 조력자에서 한 걸음 나아가, 왕과 동반자격 리더의 면모를 보여 준다. 김수로는 허황옥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녀를 손수 마중 나가서 기다린다. 허황옥은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양성적 여성이었다. 그녀는 마중 나온 왕을 만나기 전 자신이 가야에 온 것을 신성시한다. 즉 “왕후가 산 밖의 별포 나루터 입구에 배를 대고 육지로 올라와 높은 언덕에서 쉬면서 입고 있던 비단 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폐백으로 바쳤다.”라는 것이 그러한 신성화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왕의 마중에 상응하는 제의를 통해 그녀는 스스로 왕후의 자격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가야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가락국기>를 통해 볼 때 허황옥의 가야 입성은 매우 의미가 크다. 당시 가야는 구간들이 다스리는 지방분권적인 나라였는데, 허황옥이 가야 왕후가 되고 나서는 가야라는 나라가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형태를 갖추는 것처럼 묘사된다. 또한 김수로와 허황옥의 부부 관계가 매우 모범적인 남녀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음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느 날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구간 등은 모두 여러 벼슬아치의 우두머리인데, 그 지위와 이름이 모두 소인이니 농부의 호칭이지 결코 고관 지위의 호칭이라고는 볼 수 없소. 혹시라도 나라 밖 사람들이 듣게 된다면 반드시 웃음거리가 될 것이오.

<중략>

수로왕은 국가를 다스리는 집을 정돈하여 백성들을 아들처럼 사랑하였다. 그 교화는 엄숙하지 않아도 위엄이 있고, 그 정사는 엄하지 않아도 잘 다스려졌다. 더구나 왕이 왕후와 함께 사는 것이 마치 하늘에 땅이 있고 해에 달이 있으며, 양에 음이 있는 것과 비유할 수 있었다. 그 공은 도산씨가 하나라를 보필하고, 당원이 교씨를 일으킨 것과 같았다.

<중략>

나라 사람들은 마치 땅이 무너진 듯 탄식하며 구지봉 동북쪽 언덕에

14) 김정(2010), 『허황옥, 가야를 품다』, 푸른책들.

장사 지냈다. 그리고 백성을 아들처럼 사랑하던 은혜를 잊지 않고자 하여 왕후가 가락국에 처음 와서 닿은 도우촌을 주포촌이라 부르고, 비단 바지를 벗은 높은 언덕을 능현이라 했으며, 붉은 깃발이 들어온 바닷가를 기출면이라 하였다.

— 『삼국유사』, <가락국기>

허황옥을 황후로 받아들인 김수로왕은 구간 등의 이름이 위엄이 없음을 알고 이름을 보다 존귀하게 바꾸고 제도와 가옥을 정비하면서 국가의 틀이 잡혀가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왕후의 가야 입성 후에 제도와 법률 등 국가 기틀이 제도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왕후의 역할이 매우 실질적이었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불교와 문명이 먼저 발달한 인도의 공주가 가야에서 양성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왕과 왕후의 관계는 “마치 하늘에 땅이 있고 해에 달이 있으며, 양에 음이 있는 것과 비유할 수 있었다”고 할 정도로 부부의 관계는 상호 이해와 존중이 있었음을 보인다. 나라의 백성들은 왕후가 죽자 “마치 땅이 무너진 듯 탄식하며 구지봉 동북쪽 언덕에 장사지냈다”고 한다. 왕후가 죽고 나서 장사지낸 구지봉은 수로왕을 맞이하기 위한 장소였음을 환기한다면 백성들에게 왕후는 김수로왕과 같은 존재였음을 알게 된다. 여성이 원조자로서 그 존재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신화 속 많은 이야기들을 고려해 볼 때 허황옥의 전면적인 등장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4. 알파걸과 팜프파탈의 도플갱어로서 양성적 여성

고운기는 수로부인을 최초의 미시족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다.¹⁵⁾ 자신의 주장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부인을 두고 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데 위의 선덕여왕이나 허황옥과는 다른 또 다른 양성

15) 고운기(2002),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현암사, 214쪽.

적 여성들이 한 축을 이룬다. 다른 신화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여성들이 있는데, <도화녀와 비형량>의 도화녀와 <수로부인>의 수로부인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녀들은 매우 현대적인 인물들이면서 신화 속에서 아름다움으로 죄를 받지 않는 여성들이다. 일연이 기술한 이들을 또 한 축의 양성적인 여성들로 진단하고자 한다. 팜프파탈¹⁶⁾이라는 용어는 남성을 파멸시키는 아름다움을 가지는 여성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로마의 명장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유혹한 클레오파트라를 들 수 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장수를 파멸시켰다는 점에서는 팜프파탈이지만, 자신의 조국 이집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녀는 단연 알파걸이다. 알파걸이란 현대의 신조어로서 하버드 대학 댄 킨들런¹⁷⁾ 박사의 용어이다. 즉 알파걸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의견을 관철시키는 당찬 여성으로서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여성들이다. 댄 킨들런 박사는 이런 여성의 출현은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딸의 성향이 아버지의 성향을 닮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클레오파트라의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팜프파탈의 다른 이름이 알파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알파걸과 팜프파탈은 도플갱어(doppelgänger), 즉 알테르에고(alter ego)이며 쌍생아 같은 존재이다.

일연은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인 13세기에 현대의 알파걸과 비슷한 여성군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신화가 과거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늘 일어나고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 예이다. 진지왕은 4년의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 유궁에 갇힌다. 『삼국유사』에서는 죽은 왕이라고 하는 세간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지만 『화랑세기』¹⁸⁾를 보면 4년의 실정으로 진지왕은 폐위되고 3년 동안 유궁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 자신의 집권 시절 세간에 아름답다고 소문난 도화녀라는 여성을 찾아가 자신의 수청을 들게 한다. 그러나 이 도화녀라는 여성은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왕에

16) 이명옥(2003), 『팜프파탈』, 다빈치.

17) 댄 킨들런, 최정숙(2007), 『알파걸』, 시대의창.

18) 김대문(1999), 이종욱 옮김, 『화랑세기』, 소나무.

게 밝히는 양성적 여성이자 팜프파탈적 이미지를 가진다.

사량부(沙梁部)의 민가의 여인이 얼굴이 고와 당시 (사람들이) 도화랑(桃花娘)이라 불렀다. 왕은 이 소문을 듣고 궁중으로 불러 관계를 맺으려 하였다. 그러자 도화녀가 말하였다.

“여자가 지켜야 할 것은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천자의 위엄이 있다 해도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너를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도화녀가 말하였다.

“차라리 저자에서 죽어 탄 마음이 없기만을 바랍니다.”

왕은 도화녀를 희롱하여 말하였다.

“남편이 없으면 되겠는가?”

“됩니다.”

그래서 왕은 도화녀를 놓아 보냈다.

이 해에 왕이 폐위되어 죽고, 그 후 2년 만에 도화녀의 남편 역시 죽었다. 열흘 남짓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왕이 생사와 똑같은 모습으로 도화녀의 방에 와서 말하였다.

“네가 지난 번 약속한 바와 같이 이제 네 남편이 죽었으니 되겠는가?”

도화녀가 좀처럼 승낙하지 않고 부모에게 여쭙자 부모가 말하였다.

“임금의 명령을 어떻게 피하겠는가?”

그리고 그 딸을 방으로 들여보냈다.

임금은 이레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 항상 오색구름이 지붕을 감싸고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하였다. 그런데 이레 후 왕은 갑자기 종적을 감추었다. 도화녀가 이로 인해 임신하여 달이 차 곧 해산하려고 하자 천지가 진동하였다. 한 사내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비형(鼻荊)이라 하였다.

— 『삼국유사』, <도화녀와 비형랑>

도화녀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왕은 그녀를 궁중으로 불러 관계를 맺으려 하자, 그녀는 “여자가 지켜야 할 것은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한다. 그러자 왕이 “남편이 없으면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니 도화녀는 당돌하기 그지없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이 대화는 무심히 넘기면 에피소드에 지나

지 않지만 일연이 기술한 여성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주목할 만하다. 도화녀는 자신의 도를 지키겠다는 것으로 왕의 권위보다 한 개인의 존엄이 더 높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신화 속 알파걸이라 할 수 있다. 그러자 정말로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성사되기에 이른다. 유궁에 갇힌 왕은 죽은 왕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2년 후 자신의 남편이 죽은 도화녀는 왕의 재방문을 받는다. 그녀는 당당히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표하고 임금과 이레 동안 지낸다. 그리고 임신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비형이라는 인물이다. 『화랑세기』를 보면 비형이라는 아들은 왕손으로 여겨져 진평왕이 데려다가 비형과 이복형제인 용춘과 용수와 함께 자란다. 도화녀는 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자존을 살리게 되고 왕의 자손을 낳는다. 도화녀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이 여성은 아름다움이라는 팜프파탈적인 요소와 알파걸적인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삼국유사』 속에 등장하는 여성 중에서 가장 독특한 자아를 가진 이가 수로부인이다. 이 여성의 행보를 보면 고대의 여성이 아니라 현대의 철부지 여성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주장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세울 수 있는 여성이며 못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여성이기도 하다. 심지어 자연의 신물들에게도 늘 관심거리가 되는 여성이다. 수로부인의 행보를 따라가 보면 양성적인 인물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성덕왕 대에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하여 가다가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었다. 옆에는 바위가 마치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는데, 높이가 천 길이나 되었고 위에는 철쭉이 활짝 피어 있었다. 순정공의 부인 수로가 그것을 보고서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누가 내게 저 꽃을 꺾어 바치겠소?”

따르던 사람이 말하였다.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곳입니다.”

다들 나서지 못하였으나 옆에서 압소를 끌고 지나가던 노인이 부인의 말을 듣고는 그 꽃을 꺾어 와서 가사도 지어 함께 바쳤다.

그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시 이틀째 길을 가다가 임해정에서 점심을 먹는데, 바다의 용이 갑자기 부인을 낚아채 바닷속

으로 들어가 버렸다. 공이 넘어지면서 발을 굴렀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또다시 한 노인이 말하였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의 말은 무쇠도 녹인다’고 하니, 바닷속 짐승인들 어찌 여러 사람들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경내의 백성들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지팡이를 강 언덕을 두드리면 부인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공이 그 말에 따르니, 용이 부인을 모시고 바다에서 나와 (그에게) 바쳤다. 공이 부인에게 바닷속의 일을 물었다. 부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일곱 가지 보물로 꾸민 궁전에 음식들은 맛이 달고 매끄러우며 향기롭고 깨끗하여 인간 세상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의 옷에도 색다른 향기가 스며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알아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수로부인은 절세미인이어서 깊은 산이나 큰 못 가를 지날 때마다 신물에게 빼앗겼으므로 여러 사람이 해가를 불렀다.

— 『삼국유사』, <수로부인>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되어 길을 가던 중, 그의 부인 수로가 일을 당하는 것은 우연히도 모두 점심을 먹는 때이다. 첫 번째 점심을 먹는 부분에서 수로부인은 벼랑 위에 핀 꽃을 꺾어 오기를 못사람에게 부탁한다. 그곳은 부인을 따르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기적처럼 지나가던 노인이 벼랑에 올라가 꽃을 꺾어 와서 부인에게 가사와 함께 바친다. 그 노래가 바로 현화가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수로부인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자. 점심을 먹을 때 부인은 자신이 좋아하고 보고 싶은 것을 주력해서 보는 여인이었다. 여인은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알파걸이다. 그러나 그녀의 미모는 일연의 말대로 절세미인이었던 것 같다. 즉 팜프파탈의 요소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팜프파탈적인 아름다움은 지나가던 노인에게도 벼랑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었던 모양이다. 꽃과 함께 가사를 바쳤다는 표현에서 그러한 요소를 읽어 낼 수 있다. 두 번째 사건도 점심을 먹는 곳이다. “바다의 용이 갑자기 부인을 낚아채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전한다. 일연은 수로부인이

점심을 먹는다는 일상적인 행위를 전하기보다는 벼랑의 꽃을 보거나 바닷가에서 용에게 잡혀가는 이야기를 전한다. 이는 단순히 수로부인의 아름다움보다는 수로부인의 성향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호기심과 아름다움과 강한 자기주장이 수로부인의 양성적 성향을 강화시킨다. 수로부인의 일련의 사건들은 그녀의 호기심이 불러온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수로부인의 호기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용에게 잡혀간 수로부인은 “일곱 가지 보물로 꾸민 궁전에 음식들은 맛이 달고 매끄러우며 향기롭고 깨끗하여 인간 세상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이계 체험을 이야기한다. 수로부인은 항상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지적 호기심이 풍부한 성향의 여성일 것이다. 한편 수로부인의 아름다움은 신물도 질투할 만한 것이었다. 수로부인은 절세미인이어서 깊은 산이나 큰 못 가를 지날 때마다 신물에게 빼앗겼으므로 여러 사람이 해가를 불렀다. 즉 현화가처럼 그녀를 위해 사람들은 나이 여하를 막론하고 노래를 불러 바쳤다. 해가는 용왕에 들어간 수로부인을 구출하기 위해 불렀던 주술적 노래였다.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수로부인은 신화의 미시족이면서 팜프파탈적인 속성을 가진다.

5. 나소며

일련의 글쓰기는 일련의 의식을 반영한다. 즉 일련의 『삼국유사』 속에 등장하는 양성적 여성들은 시대를 거슬러서 현대 담론으로 해석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본고는 모성성과 불교의 여성상을 중심으로 펼쳐 왔던 기존 일련의 여성관에 현대적 관점을 적용해 보는 임기를 시도한 것이다. 중심과 주변이 뒤바뀌는 포스트모던 상황에서 우리의 『삼국유사』 읽기는 보다 더 새로워져야 할 것이다. 이미 미디어와 영상 매체에서는 그러한 요소를 잘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드라마 <선덕여왕>의 여왕 그리기와 드라

마 <김수로>의 허황옥 그리기는 변화하는 시대의 담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여성 그리기에 성처녀의 남성 이데올로기가 많이 드러나고 여성이 주로 타살된 것에 비하면 일연의 이야기 속 여성의 다양한 모습은 매우 의미 있는 기술이라고 하겠다. 신화는 그 시대에도 일어나고 계속 반복해서도 일어나며 현대에도 일어나는 사건을 말한다. 양성적 인물로 바라볼 수 있는 『삼국유사』 속 여인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도플갱어들이다. 신화 속 인물들은 이야기 속의 환상적인 존재로만 있지 않는다. 늘 현재 삶에서 그 원형을 드러내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

참고 문헌

단행본

- 고운기(2009), 『도쿠가와가 사랑한 책』, 현암사.
_____(2005), 『삼국사기열전』, 현암사.
_____(2010), 『삼국유사 글쓰기 감각』, 현암사.
_____(1998), 『삼국유사』, 흥익출판사.
_____(2002),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현암사.
고혜경(2006),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 한겨레출판.
김대문(1999), 이종욱 옮김, 『화랑세기』, 소나무.
김별아(2005), 『미실』, 문이당.
김정(2010), 『허황옥, 가야를 품다』, 푸른책들.
김부식(2007), 아우경 편역, 『새로운 삼국사기』, 한국문화사.
_____(199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집부, 『삼국사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열규(2000), 『신삼국유사』, 학연사.
댄 킨덜런, 최정숙(2007), 『알파걸』, 시대의창.
동아시아고대학회(2003), 『동아시아 여성신화』, 집문당.
로버트 A. 존슨, 고혜경 옮김(2006), 『신화로 읽는 여성성, She』, 동인.
리상호(2000), 『삼국유사』, 까치.
박진태(2002), 『삼국유사의 종합적 이해』, 박이정.
버지니아 울프, 이미애 옮김(2006), 『자기만의 방』, 민음사.
서대석(2000),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서정오(2003),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 현암사.
신동훈(2004), 『살아있는 우리 신화』, 한겨레신문사.
이가원, 허경진(1996), 『삼국유사』, 한양출판.
이도흠(2000),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 푸른역사.
이명옥(2003), 『팜프파탈』, 다빈치.
이어령(2006), 『이어령의 삼국유사』, 서정시학.
이종욱(2005), 『색공지신 미실』, 푸른역사.
일연, 김원중 옮김(2002),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조현설(2006),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주강현(2004),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1,2』, 한겨레신문사.
질베르 뒤랑, 유평근 옮김(2002), 『신화비평과 신화분석』, 살림.
카렌 암스트롱, 이다희 옮김(2005), 『신화의 역사』, 문학동네.
케이트 밀레트, 정의숙·조정호 옮김(1976), 『성의 정치학(상)』, 현대사상사.

차옥승(2010), 『동아시아 여신 신화와 여성 정체성』,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최재천(2003), 『여성시대에는 남성도 화장을 한다』, 궁리.
 표정옥(2010), 『그곳 축제에서 삼국유사를 만나다』, 연세대학교출판부.
 표정옥(2009), 『놀이와 축제의 신화성』, 서강대학교출판부.
 황패강(2000), 『한국 신화의 연구』, 새문사.

논문

고운기(2010), 「일연의 글쓰기에서 정치적 감각 — 삼국유사 서술방법의 연구 2」, 『한국언어문화』 Vol. 42, 한국언어문화학회.
 권인한(2008), 「『삼국사기』, 『삼국유사』 자료 연구의 방법과 실제」, 『한국문화』 Vol. 4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김주한(1983), 「삼국유사소재 <찬>에 대하여」, 『삼국유사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
 김창현(2008), 「신화에 나타난 비극적 세계상과 그 서사적 전개 —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 소재 설화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Vol. 20, 온지학회.
 박상영(2006), 「『삼국유사』 소재 찬사를 통해 본 일연의 세계인식」, 『고전문학연구』 Vol. 30, 한국고전문학회.
 박진태 외(1997),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I」, 『민속학』, 민속학회.
 _____(1999),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II — 문헌적 성격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_____(2000),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III — 고대, 중세 문화의 탐색」,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박진태(2001), 「삼국유사를 통해 본 고대사회의 제의문화」, 『비교민속학』 Vol. 21, 비교민속학회.
 윤혜신(2006), 「『삼국유사』 소재 설화에 나타난 천신의 인격화 양상과 의미」, 『민속문학사연구』 Vol. 30, 민족문학사학회.
 이강욱(2001), 「『삼국유사』의 세계관과 서술미학」, 『국문학 연구』 Vol. 5, 국문학회.
 이달문(2004), 「『삼국유사』 소재 단군 신화의 원전에 관한 한 가지 의문」, 『한문교육연구』 Vol. 22, 한국한문교육학회.
 이대형(2007), 「모성담론의 문화적 형성과 재현: 고대에서 근대전환까지 모성담론의 문화적 조망: 『삼국유사』에 나타난 모성의 형상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이동민(1993), 「신라 불교사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대학원.

- 임재해(2009), 『삼국유사 설화 자원의 문화 콘텐츠와 길 찾기』, 『구비문학연구』 Vol. 29, 한국구비문학학회.
- 장만식(2007), 『『삼국유사』 권2 <무왕조>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문학치료적 함의』, 『문학치료 연구』 Vol. 6, 한국문학치료학회.
- 조동일(1982), 『『삼국유사』 설화 연구사와 그 문제점』, 『한국사연구 38』, 한국사연구회.
- 최선경(2005), 『『삼국유사』 불교 설화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 형상과 기능에 관하여』, 『인간연구』 Vol. 8,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 하은하(2005), 『『삼국유사』 소재 설화를 이용한 문학 치료의 한 사례』, 『문학치료연구』 Vol. 2, 한국문학치료학회.

본 논의는 『삼국유사』 <기이편>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양성성이라는 용어로 진단하고자 한다. 케이트 밀레트는 여성의 사랑이나 가정과 같은 것이 은밀하게 정치화되어 내부 식민지화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어쩌면 우리의 문화 담론은 이런 여성 내부 식민지화를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한 스님의 담론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21세기에 논의하는 내부 식민지화나 성별 정치화의 용어를 빚겨 가는 듯하다. 버지니아 주창했던 양성성의 인간이 이미 이야기되고 있었던 것 같다. 양성성의 인간은 버지니아 울프가 자신의 책 『자기만의 방』에서 논의한 개념이다. 100여 년 전 버지니아는 콜리지의 양성적 마음을 타인의 마음에 열려 있고 공명하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감정을 전달할 수 있고, 창조적이고 빛을 발하며 분열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양성성에 대한 논의는 미르치아 엘리아데에게도 주된 관심사였다. 엘리아데는 신체적인 양성성과 심리적인 양성성을 나누어 설명한다. 남성의 아니무스와 여성의 아니마가 동시에 존재하는 양성성은 신체적인 양성성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의의 대상이 되는 <기이편>의 여성은 세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 <태공 춘추공>에 등장하는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와 <선덕왕이 미리 안 세 가지 일>의 선덕여왕을 신성성과 환상성을 정상 담론으로 형상화한 양성적 여성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두 번째, <가락국기>의 허황옥의 양성적 양상을 조력자에서 동반자의 개념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세 번째, 알파결과 팜프파탈의 도플갱어로서 양성적 여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때 거론되는 여성은 <도화녀와 비형량>의 도화녀와 <수로부인>의 수로부인에 대해서 현대 양성성의 담론인 알파결과 팜프파탈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본 논의는 지금까지 『삼국유사』의 여성 담론이 모성과 불교의

인물 형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사고를 현대적 상상력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삼국유사』는 과거 화석화된 상상력이 아니라 후대에 다양하게 소통하는 상상력의 원천임을 밝히고자 한다.

- ▶ 주제어: 삼국유사, 여성, 양성성, 신성성, 환상성, 역사 담론, 양성적 여성, 알파걸, 팜프파탈, 도플갱어.

A Study about the Modern Cultural Discourse of Female Androgyny in *SamgukYusa*

— Focusing on Females in the *Strange Stories*—

■
Pyo, Jung-ok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Modern Cultural Discourse of Female Androgyny in *SamgukYusa*, focusing on females in the *Strange Stories*. The women in strange stories are the androgynic woman with three aspects. The first, Munhee, a sister of KimYuShin, and the Queen Sunduk is the androgenic beings. They used the sacred and the fantasy to gain the power of king. Munhee bought the dream of her sister, getting pregnant ahead of marrying with Kim Chunchu, and finally had a courage of being killed on burning trees. The Queen Sunduk predicts her death ahead of her own death. They acquired the kingly power with utilizing the holy fantasy.

The second, HuWhangok, the queen of Kaya, is an another androgyny, She is the first multicultural woman through our histories. She rejected people greeting her and asked the king to meet her directly. She gave her three sons of seven sons her family name. She is the first androgyny in our historical tradition.

The Third. Dowhanye and Suro's wife are the Alpha girl and the femme fatale. They are commonly beautiful but their beauty caused many problems to them. They used their beauty to know their identity. Dowhanye was an Alpha girl to reject king's request. Suro's wife was the femme fatale capturing other people's attention, and Suro's wife caused cosmetic beings to take her away. There is no reason that their beauty should be punished by other people. However, they are pardoned

in stories with her beauty.

- ▶ Key words: SamgukYusa, females, androgyny, the sacred, the fantasy, the androgynic woman, the Alpha girl, the femme fatale, doppelgänger.

* 투고 접수: 2010. 11. 30.
심사 완료: 2010. 12. 22.
게재 결정: 2010. 12. 23.